



#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 양계관련 통계조사사업 실시 8개월간 양계농가 전수조사

본회에서는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8개월간 양계관련 통계자료 조사사업을 벌인다. 본회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하는 양계관련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양계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기금수급안정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각종 양계관련 통계자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쉽게 정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통계청으로 통계업무가 이관되면서 현재로서는, 통계청, 농협중앙회 등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방법에 따르면 가축수수 및 농가 수 등 기초자료를 연 4회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닭의 경우는 2006년부터 3,000수 이상 사육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1년 동안 전국의 산란계 140호, 육계 130호 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생산비를 집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방법 역시 관련자료를 표본 농가가 직접 작성하거나 조사원이 매주 1회 이상 농가를 방문하여 면접청취를 하고 기장상태를 점검하여 조사내역의 누락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에서는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를 축산유통부에서 관련 조직을 통해 취합, 발표하고 있다. 물론 본회에서도 각 품목별 가격 및 통계자료 조사를 양계속보를 통해 대 농가 서비스를 펼쳐가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정부로부터 발표되는 통계에 대해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던게 사실이다.

이번 조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 조사용역기관으로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이 선정되었으며, 추진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선정된 동기관은 8개월 동안 1억8천만원을 투입해 종계, 육계, 산란계와 관련하여 모든 양계인을 대상으로 기본조사(주소, 규모, 품종 등), 생산분야(수익성, 생산원가 등), 질병분야(질병감염 등), 유통분야(수입현황 등), 제도분야 등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전국의 양계인들은 통계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는 조사원들에게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져 보다 정확한 통계가 산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이 조사가 마무리 되면 이를 바탕으로 양계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체계화되고 정례화되어 양계인들의 기초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백화점 등 불량 계란유통 적발 계란 냉장유통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계란은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전국의 채란농장 대부분이 과거에 비해 깨끗하고 위생시설을 겸비한 환경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 항생제 남용으로 가끔 언론에 오르내리던 시대는 지나가고 오히려 최근에는 계란 오염 및 품질 저하로 인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즉, 농가에서는 이제 항생제 등이 검출되는 비위생적인 계란을 생산해서는 더 이상 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항생제 남용은 옛말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중 파각란, 혈란, 기형란, 오염란 등 상품화가 될 수 없는 계란 이외의 일반 계란은 어디에 내 놓아도 +1 등급을 받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생산자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생산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보관하였는가에 따라 계란의 품질은 변화무쌍하고, 심지어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여름의 경우에는 품질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지난 7월 중순 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언론에 공개된 계란의 신선도 문제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시중에서 팔리는 계란 10개중 3개(약 28%)가 불량이며, 영양란 등 특수란도 함량 미달로 나타났다. 심지어 냉장시설이 설비된 백화점에서까지 최하등급인 3등급의 계란이 판매되는 것은 유통구조상의 큰 허점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3등급이라 하면 위로 솟아 있어야 할 난황이 평평하고, 많은 양의 난백이 난황을 에워싸야 함에도 난황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수양난백이 아주 많고, 호우유니트가 40~60 정도로 계란을 깨어 떨어뜨렸을 때 난황이 쉽게 퍼지는 정도의 불량한 계란을 말한다.

이 같은 계란이 버젓이 백화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유통의 복잡성과 유통과정의 보관온도와 보관기간이 적정하지 않은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농장의 계란창고, 집하장 또는 대형·소형 상인보관, 포장작업, 마트 및 소형 유통상인의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단계 유통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짧게는 2~3일에 소비자에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15~20일이 걸려 소비자에 도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계란의 상미기간을 설정해 계란의 품질을 최대한 유지토록 계도하고 있는데 계란을 10℃에서 보관할 경우 최대 57일까지 보관이 가능하지만 36℃에서는 8일 이상을 두면 식용

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0℃에서도 13일간 상온에 보관할 경우 식용이 불가능하다. 즉, 냉장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생산하더라도 신선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격히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자 단체인 본회 역시 농장 또는 지역적으로 냉장시설이 완비된 계란보관 창고의 설치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계란 등급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란이 신선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함께 건강해 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 주었으면 한다.

## 한·EU FTA 타결과 양계산업

### 양계분야도 닭고기 수입에 따른 피해 클 듯

한·EU FTA가 사실상 타결되면서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EU FTA 1차 협상은 지난 2007년 5월 서울에서 첫 협상이 시작된 이후 2년여동안 유럽과 서울을 오가며 수차례의 협상이 이어져 왔다.

정부에서는 이번 협정이 발효될 경우 첫째 피해액은 적지만 관세가 없어지는 15년 이후에는 피해가 가장 커지게 되며, 연간 2,300억원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정부에서는 축산물중 양돈, 낙농부분의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며, 양계분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는 분위기이지만 양계분야를 간과해서는 결코 안된다. EU는 전세계의 최대농산물 생산국이며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지역이다. FTA 체결시 EU산 농산물 주력 품목인 돼지고기, 가금육류(닭고기), 낙농품, 가공농산물 등의 수입이 증대되어 국내 농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도 수입된 가금산물중 닭고기는 4,800만 달러로 전체 수입량의 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입가격은 kg당 2,071원으로 국내산 kg당 4,825원에 비해 43% 낮은 가격에 들어왔다. 이때는 2003년도 이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미국, 태국, 중국의 수입선이 덴마크 등 EU국으로 옮겨가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았지만 FTA가 타결되면 언제든지 닭고기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장태평 장관에 의하면 EU라는 큰 틀에서 협상이 되었을 뿐 각 EU 회원국(총 27개국)에서의 의견이 취합되는 10월 이후에 정확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난 한·미 FTA 협상결과 닭고기와 계란의 경우 10~15년 이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발표된 만큼 이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조건은 제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산자 단체에서는 폐업보상금 등 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이후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양계**